



# 인터넷 비즈니스 현황 및 전망

이 근 철 제일설계(주) 기술고문 공학박사

## 머 리 말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인터넷 대중화 붐은 인터넷은 황금시장이라는 인식을 낳았다. 그러나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반면 인터넷 비즈니스는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즉 인터넷 시장에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시장은 기존 시장과 마찬가지로 치밀한 마케팅 전략과 함께 서비스나 제품 품질 등이 필수적인 성공 요소로서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핵심은 '아이템'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가능성과 다양화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 1. 인터넷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인터넷 비즈니스의 사례로는 '인터넷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첫째로 들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한 컨설팅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심지어 개인까지도 인터넷이 황금시장이라는 인식하에 인터넷과 비즈니스의 접목을 고민하고 있다. 그

러나 관심은 많아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연 자신이 하려는 비즈니스가 돈이 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인지, 혹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제품이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인지, 또 인기를 끌려면 어떤 마케팅기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컨설팅하는 것이다. 심지어 인터넷 비즈니스를 할 마음은 있는데, 아이템을 정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종목을 개발해주기도 한다. 물론 시스템 구축과 운영, 관리방법, 교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 서비스이다.

본 사업의 장점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의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인터넷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함께 고객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비즈니스 컨설팅은 일반인이 뛰어들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다. 인터넷 전문가, 이 중에서도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전문가가 아니라 인터넷 전반의 흐름과 비즈니스 동향 등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은 바이닝 서비스(Buying Service), 셀링 서비스(Selling Service), 유통 비즈니스 등의 사업 종목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구상이 미리 잡혀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컨설팅을 받은 후 충분한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내리게 할 만큼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은 인터넷 비즈니스 컨설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고객을 확보할 수 없고 확보해서도 안된다.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컨설팅을 해준 사람에게 있지만 피해는 해당 기업이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법, 그리고 웹서버나 BBS 등의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 운영법과 구축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술자를 고용해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끝으로 시장 감각과 기술적 자원을 확보했다면 비즈니스 업무를 직접 수행해보면서 컨설팅의 실패 오

차를 줄여야 한다. 이때 확보되는 경험적 자료를 잘 정리해 놓으면 실제 인터넷 비즈니스 컨설팅에 큰 도움이 된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이를 컨설팅해주는 일이야 말로 인터넷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만하다. 준비조건을 잘 갖추고 실제 사업에 성공한다면 인터넷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는 기업군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현재 이 사업은 미국과 같이 인터넷 비즈니스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튼튼하게 뿌리박혀 있다. 넷스케이프나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실리콘 그래픽스 등 인터넷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마다 한 두 기업 이상의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다. 물론 신생 업체들도 자사의 인터넷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검토를 이들 업체에게 맡기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관련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인터넷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사업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

## 2. 사이버 북포트

최근 멀티미디어 환경이 많이 보급되면서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들도 인터넷에 쉽게 접속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이 생겨나고 있다. 출판 분야는 초기에 온라인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수준의 온라인 서점이 몇개 생겨났다. 그러나 인터넷과 탁상출판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서점뿐 아니라 사이버 출판사도 출현하게 되었다. 서적 기획·출판·유통의 3단계를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이들을 우리는 보통 사이버 북포트(Cyber Bookport)라고 부른다.

사이버 북포트는 지금까지 서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개념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많다. 무엇보다도 글을 활자로 찍어 종이에 인쇄하고 유통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없어진다는 점이다.

인터넷에서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수십권을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것을 이용해 출판사는 작가의 작품을 통신상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저장한다.

세계 각국의 이용자들은 원하는 대로 이 가상서점의 웹 서버에 접속해 책의 전문이나 원하는 부분을 선별해 읽을 수 있다. 물론 자료를 자기 컴퓨터로 가져와 종이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나 출판사측에서 보면 책을 출간하기 위한 유통과정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인쇄비용은 키편저들의 인건비 정도로 대체될 것이며, 재고 및 추가 인쇄 부담이 전혀 없어 그야말로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 아닐 수 없다. 사용자측면에서 보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출간되는 책들을 즉시 접할 수 있고,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부분만 선별해서 볼 수 있다.

현재 가상서점을 운영하는 곳이 미국 등 해외에 몇몇 사이트가 있다. 현재는 영어와 독일, 불어 정도의 외국어로 번역·제공되고 있지만 이들 사이트의 수입원은 각각 다르다. 기존 출판업의 홍보 차원에서 가상서점에서 무료로 텍스트의 일부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반면에 기존의 인쇄 출판을 그만두고 가상서점에 전념하는 회사도 있다. 후자의 경우 사용자가 가상서점에 접속해 책의 본문을 전송받아 읽을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역시 종이로 제본된 책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제본된 책을 구입하는데 10달러가 든다면 통신상에서 책을 읽고 저장하는데는 2~3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인쇄비나 종이값, 유통 비용을 제외하면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또 타국어로 번역되어 서비스될 때는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사실 인쇄된 정장본의 책을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작가의 해외 출간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책의 전문을 차례로 읽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로 책 내용을 검색해 특정 부분만 발췌해 볼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여러 출판사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온라인 책이 출간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출간물이 전문수록되어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가상서점은 없다. 세계가 인터넷으로 묶여 하나의 지구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국내 출판업계도 수동적으로

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 출판업의 문제점들을 인터넷 시대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 3. 인터넷 프로덕션

국내의 한 방송에서는 라디오 컴퓨터 쇼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유명 가수들이 만든 컴퓨터 음악을 소개해 주기도 하지만, 일반 컴퓨터 음악 이용자들이 작곡 및 편곡을 해서 보낸 곡을 들려주고 전문가들이 평을 해주는 코너도 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도 나오고 그들 중 컴퓨터 음악을 통해 음악계의 전면에 데뷔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가요제 등을 통해 음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실력과 운이 따라야 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신인 가수의 음악을 소개해 주며, 특히 컴퓨터 음악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데뷔의 문을 열어 주는 인터넷 프로덕션이 생겨났다. 가수를 데뷔시켜 주는 프로덕션 외에도 인터넷에서 컴퓨터 음악을 하는 가수 지망생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직접 작곡한 음악을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파일로 들려주기도 한다.

인터넷 프로덕션을 만들려면 컴퓨터 음악은 물론 인터넷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이나 컴퓨터는 차차 배울 수 있다고 해도 음악적으로 문외한인 사람은 가능하면 포기하는 것이 좋다. 단시일 내에 음악적 재능을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프로덕션은 기존의 프로덕션과 같은 개념에서 생각하면 된다. 일단 음악과 가수가 선정되면 녹음 작업을 한다. 물론 기타나 피아노 등의 일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녹음할 수도 있다. 또 처음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악기로 녹음을 했다면 작업이 더욱 수월해진다.

녹음된 음악을 갖고 인터넷 프로덕션의 홈페이지에 연결시키면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가 프로덕션에 들러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로부터 음악적인 조언을 들을 수도 있다.

한편 인터넷 어학교육 사업을 보면 어학 공부는 아무리 유능한 교사 밑에서 배운다고 해도 반복해서 외우고 활용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게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 학습 시스템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 교육이 상당히 실용화되어 있다.

현재 서강대의 한 고급 영어 강좌에서는 기본적인 인터넷 교육을 시킨 후 유럽 대학들과 인터넷을 통해 만나 환경문제나 기술분야, 영화 등의 주제를 정해 온라인으로 국제 대학생 토론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과 영어, 그리고 국제교류의 현장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다.

물론 일반 영어 강좌에서도 외국인 교수와 여러 학생이 모여 한 주제를 놓고 영어로 토의를 하며, 외국인 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하지만 인터넷의 토론은 외국 대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며,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터득해 간다는 점에서 현실 어학 교육에서는 불가능한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현재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는 단지 텍스트 형식으로 대화를 하므로 영어 작문과 독해 수준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인터넷 폰 서비스를 활용하면 텍스트 형태의 교육뿐 아니라 회화 교육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과 어학 교육을 접목시키게 되면 학교 영어 문법수준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나 발음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용한 사업이 바로 인터넷 어학 교육사업이다.

영어와 인터넷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 교육사업은 당연히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 혹은 거의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며 교

육 자격이 있고, 인터넷도 능수 능란하게 이용할 줄 아는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급인력을 쉽게 확보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인터넷의 최대 장점인 공개성과 전세계 어디든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살리면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강사를 모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하다. 이렇게 하면 외국 유학생이나 교포들을 교사로 확보할 수도 있다.

#### 4. 인터넷 테마 도시 운영

인터넷은 무궁무진한 미지의 공간을 제공하며, 먼저 개척하는 자만이 인터넷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간혹 현재의 인터넷은 유럽 대륙으로부터 빠져나와 오랜 항해 끝에 미대륙을 발견한 개신교들이 넓은 땅에 말뚝을 박는 대로 자기의 땅을 가졌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로 비교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인터넷이라는 신대륙에 웹 서버라는 말뚝을 박고, 홈페이지라는 집을 짓기만 하면 일단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 놓은 것이다.

최근 인터넷 비즈니스를 꿈꾸는 이들이 모여 가상 테마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인터넷 가상 테마 도시들은 기존의 쇼핑몰 사이트를 한층 발전시킨 것이다. 즉, 보통 딱딱한 텍스트보다는 자라와 같이 실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동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하이퍼링크를 여행하는 것보다는 점포 안을 걸어다니거나 구입하려는 물건을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다.

가상 테마 도시에 참가한 기업은 회사명이나 사업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메뉴 화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용자는 화면상에 각 점포를 마우스로 클릭해 방문하게 된다. 가상 테마 도시에 들어서면 거리가 보이고 거리에는 여러 가지 빌딩들이 준비하게 서 있다. 이용자들은 마우스를 움직여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거리에 있는 가상서점이나 은행, 카페(채팅방), 시청 등에 들어가 볼일을 볼 수도 있다.

한 이용자의 쇼핑을 연상해 보자. 인터넷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 테마 도시 안에 들어선다. 여러 갈래의 거리와 빌딩이 보이고 현재 있는 위치는 모니터 한쪽에 지도로 표시되어 있다.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마우스를 이용하여 은행으로 향한다. 은행 건물 현관에 마우스로 클릭하자 문이 열리고, 안에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한다. 은행의 한 창구에 가서 예금주의 거래 코드와 금액을 입력하면 입금이 자동으로 완료된다.

꽃집으로 가서 꽃다발을 주문하면 종업원이 샘플을 보여준다. 맘에 들지 않아 카네이션과 장미, 안개꽃을 골라 꽃바구니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점원은 바구니를 만들어 보여주었고 받는 이에게 메시지 내용을 입력, 대금을 지불하면 하루만에 메시지와 함께 꽃바구니가 배달된다.

이처럼 현실의 거리에 있는 것처럼 PC상에서 쇼핑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가상 테마 도시는 현재 많은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 5. 인터넷 라디오 방송 사업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전파나 통신을 통해 남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입력된 내용을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이 접속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라디오 방송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방송 제공 회사에서 음악이나 DJ의 멘트를 디지털 신호로 저장해 놓아 데이터를 없애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 또한 사운드 카드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화면으로 글을 보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다.

리얼 오디오를 개발한 프로그래시브 네트워크사의 홈페이지(<http://www.realaudio.com/>)에 들어가면 지구촌 곳곳의 라디오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실시간으로, 즉 마우스 클릭과 동시에 소리를 전송받아 들려준다.

그러므로 해당 음성 파일을 하드 디스크로 전송 받은 후 실행하는 다른 서비스보다 훨씬 생생하게 음악이나 음성 뉴스를 들을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래시브 네트워크에 들어가 원하는 방송사의 웹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자신의 웹 브라우저로 불러들이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이것은 '주문형오디오(Audio On Demand)'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이 이 서비스에 참가하고 있어 스포츠, 최신 뉴스 등을 무료로 청취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ABC 방송을 포함해 CBS, MCI, 스타웨이브, 다크존스 등이 이 실시간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일단 기존에 라디오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방송사의 영역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소규모 사설 방송 등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전 세계를 청취권으로 묶을 수 있다. 또한 방송 시설이 없는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희귀한 레코드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나 DJ를 꿈꾸던 사람도 홈페이지 제작과 음악 및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노력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을 세울 수 있다. 물론 이때 사운드 녹음 시설과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 등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했다 해도 빈약한 자본과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문을 닫는 제조업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통로는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대행업은 생산업자가 여러 유통 경로나 비싼 홍보비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소비자와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다.

인터넷 판매대행업은 일반 무역 거래에서 오퍼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역 및 법규에 관한 전문 인력이며, 홈페이지 제작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능숙한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인터넷 판매대행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 안내를 게재해 이용자가 이를 보고 구매 버튼을 눌러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즉, 일반적으로 생산업체와 소비자간 사이의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저렴하게, 상품을 게재하는 업체에게는 효과적인 판로를 개척해 주는 사업이다. 해외 수출시는 영문으로 서류를 작성해 수출 업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준다.

판매 대행 절차는 생산업체로부터 상품안내서를 받아 인터넷에 상품안내를 제공하고, 이 상품안내를 본 이용자로부터 인터넷이나 전화, FAX 등으로 주문을 접수한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지로로 하며, 결제가 이루어지면 상품을 주문지로 보내는 발송작업을 하면 된다.

물론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인터넷에서 상품 판매를 할 수도 있다. 단 상품안내를 하기 위한 홈페이지의 제작이 수월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제작 대행업체를 통해 하면 된다.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인터넷 통신 판매는 계약비용이나 운영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상품 게재 비용 역시 저렴하므로 기존의 판매전략에 사용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소비자들을 접할 수 있어 무한한 잠재적 소비자 층을 확보할 수도 있다. 기존의 무역 거래에서는 각 나라의 관세나 언어장벽 등이 많은 장애가 됐으나 인터넷 상 거래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인터넷 판매대행자는 단순히 판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반응을 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형태를 분석해 생산업체의 판매전략 및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성향 분석은 인터넷이 쌍방향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터넷 판매대행업은 현재 국내에서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사이버커머스(<http://www.cybercc.com>),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http://kotra.net.kotra.or.kr/>) 등이 있다.

## 6. 인터넷광고 대행업

인터넷 광고 대행업이란 홍보를 원하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를 인터넷에 올리고,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의외한 기업이 부담한다. 인터넷 광고는 그 자체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인터넷의 인터랙티브 기능을 이용해 현실에서 소비자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쌓기 위한 기반으로도 유용하다. 즉, 제품에 대해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반응을 조사해 실제 마케팅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온라인 광고는 상세한 문자 정보와 함께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함께 제공할 때 효과가 크다.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이라면 광고 대행업체보다는 웹 서버 구축 업체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터넷 광고 대행업은 웹 서버 구축과 달리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광고를 차별화하는 사업이다. 만약 고객 기업에서 웹 서버를 구축하기 원한다면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가 다른 웹 서버 구축 회사에게 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는 대신 온라인 광고에 성공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터넷 광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첫째, 홈페이지에 제품과 기업 이미지의 특색을 정확히 나타내야 한다. 둘째, 향후 실현될 기술의 발전을 예상하여 6개월의 단기 계획부터 1년, 혹은 5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셋째, 잠재적 광고주를 정의해 이를 대상으로 사이트 이름을 노출시키고 마케팅할 소스를 밝혀낸다. 이를 위해 잠재 광고주들의 광고 형태에 대한 정보를 연구, 조사하고 기업 전문지나 관련 전문기관들을 찾아 마케팅한다. 넷째, 사이트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수입을 예상해 이 비용을 광고 서비스 가격에 책정한다. 다섯째, 서비스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한다.

이와 같은 전략으로 광고 대행을 할 때 많이 신경써야 할 것 중 하나가 자세한 텍스트 정보와 함께 제품에 대한 시청각 자료 제공이다. 특히 오디오, 비디오,

사진, 텍스트 등 모든 시청각 효과를 동원한 쌍방향식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용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에 있어 주의할 점은 기존 매체에서 인쇄, 배포되거나 방송된 내용을 그대로 온라인에 옮기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이퍼 미디어나 하이퍼 텍스트 등 인터넷의 장점인 인터랙티브성을 잘 활용해 광고를 제작해야만 한다.

구체적인 광고제작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 제조 업체나 상점 연락처, 상품 품목, 제품 사진과 특징, 가격, 구매 방법 등을 사진과 문자로 소개한다. 좀더 기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경영진의 얼굴(그래픽 데이터)이나 인사말(음성 데이터)을 작성한다. 또 소비자의 상품이나 광고에 대한 의견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작한다.

형태에 있어서도 화면에서 일정기간 회사 로고나 선전문구가 나타나는 '고정 광고'는 기본이고 '롤링 광고(화면이 바뀔 때마다 다른 광고가 나타나는 것)', '연계 서비스 광고(광고 영역을 마우스로 누르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도록 한다. 온라인 이벤트 정보 제공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는 온라인 애드 에이전시(<http://www.advert.com/>)를 들 수 있다. 또한 GNN(<http://www.gnn.com>)으로 유명한 미국 오렐리사도 웹 광고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내에 온라인 광고가 등장한 것은 '92년 하이텔이 줄광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 당시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광고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졌으나 현재 멀티미디어 통신 환경이 구축되면서 온라인 광고는 새로운 매체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금강기획이 '95년 8월 국내 광고 회사로는 처음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을 필두로 제일기획, 오리콤, 대흥기획 등 광고 회사들도 인터넷 광고 대행업을 서두르고 있다.

## 7. 인터넷 보안관

미국의 프로다지나 컴퓨서브 같은 통신 회사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가입자에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실 채팅룸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다지사는 한 달에 20만명 이상이 채팅룸을 이용하고 있는데, 글을 올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적발하고 제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인터넷 보안관이다.

인터넷 보안관이 다루는 문제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 온라인 서비스사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쓸데없이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는 행위, 물건을 강매하거나 애인을 구한다는 등의 저속한 글을 올리는 행위 등이다. 일단 적발되면 경고를 주고, 그래도 계속 일이 발생하면 인터넷 보안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회사가 일정기간 이상 사용금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현재 미국 PC통신 회사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터넷 보안관은 주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컴퓨터 통신 매니아들로 구성돼 있다. 프로다지의 경우 하루에 평균 7명 정도의 보안관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채팅룸을 지킨다.

인터넷 보안관은 흥미 있는 작업이다. 남들의 생각을 항상 쉽게 알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특정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항상 남의 글을 감시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PC통신 회사에서는 인터넷 보안관들에게 항상 중립을 지키며 감시인의 태도가 아닌 동행자와 같은 입장에서 참여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PC통신 회사의 보안관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에서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보안관을 고용하게 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명칭은 다소 변할지 모르지만, 인터넷 보안관은 앞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의 확산과 원격 교육, 원격 진료, CALS 등의 각종 서비스가 활성화됨과 함께 불량 사용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대두될 것이다.

## 8. 정보검색 대행업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로 이제는 전세계에 널려 있는 수많은 자료 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먼저 찾아내 선점하는 사람이 앞서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대인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 특히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인터넷 자료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적절히 구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시간과 돈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고도의 정보검색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반인이나 기업을 위해 정보검색을 대행해주는 사업이 유망업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사업 아이템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도 한다.

정보검색 대행사는 인터넷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해 준다. 단지 정보를 검색해 주기도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 편집해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 '90년 정보검색 전문 업체로 넥서스가 처음 문을 열었고 그후에 특히 관련 정보검색 업체가 몇 군데 나타나고, 인터넷 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생겨났다. 이들 업체에서는 단순 검색의 경우 업체마다 다르지만 평균 5만원 정도를 받고, 의뢰인이 자기 목적에 맞게 가공을 요구하면 의뢰인과 협의해 적정한 수수료를 추가한다.

현재 영업중인 정보검색 대행사들은 미국의 다이얼로그나 컴퓨터서브 외에 세계 각국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망과 연결해 경제·경영·과학기술·의학·문화·예술 등 거의 전 분야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상주 검색요원 외에 미국의 우수대학과 국내대학,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석·박사급 검색인력을 확보해 정보검색의 신뢰도를 높이기도 한다.

정보검색 대행업의 생명은 인력으로서 현재로서는 검색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 각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정보검색사 양성과정을 마련해 놓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9. 인터넷 이용한 재활용품 사업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재활용품의 수거가 급증했다. 이전에는 그냥 쓰레기로 버렸던 재활용품들을 이제는 분류만 제대로 해놓으면 무료로 수거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쓰레기 처리장에 가보면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와 섞여 폐기되고 있다. 별도의 재활용 시설을 갖추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재활용 장비를 갖춘 업체들도 적어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 아이디어를 얻어 재활용품 수거업체들과 각종 중고매매업체, 수리업체들을 연결해 재활용품 매매를 하는 업체가 외국에 생기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린카드시스템'사는 의류, 가전제품, 자전거, 알미늄 제품 등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재활용 센터로 가져오면 중고품시세에 맞는 '그린카드'를 발급해준다. 이 그린카드는 그린카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250여개의 지역 상점에서 통용되며, 여기에는 피자 하우스에서 변호사 사무소까지 광범위하다.

어쨌든 모아진 중고품은 각 처리회사에서 판매되거나 개인에게도 재판매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건은 분해해서 원자재 상태로 만들어 처리된다.

이 사업은 일종의 재활용 관련업체에 대한 중개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과 연결한다면 훨씬 일이 용이하나 단지 전화로 연락을 취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거나 판매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국제적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도 있다. 물론 개인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덩치가 큰 물품보다는 자그마한 재활용품이 적격일 것이다. 일본의 한 주부는 유즈넷 뉴스그룹을 이용해 중고 컴퓨터 시스템을 사거나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는 내용이 신문 기사로 난 적이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중고 생활용품 거래 신문인 '벼룩시장'(<http://ain.icube.co.kr/index3.html>)이 웹으로 서비스되기도 해 이 사업은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자료를 제공해 준 영남대학교 진산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